

문학

개념 판단

공통

- * 시간 단축을 위한 태도 ; **개연성, 합리성에 주목하기**
- * **모든 단락을 다 볼 것!**
- * 시간을 줄여야 할 곳은 소설이 아니라 현대시와 고전시가

끝까지 정답을 붙잡을 것!
- 모든 단락을 꼼꼼히

- * **외적 증거를 기준으로 독해한다.** (의심)

; <보기>문제에서 <보기>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 선지로 나오면 틀린 선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.

- * **선지 내의 논증** (자주 나오진 않지만, 가장 강력!)

; "<날아가는 악새와 완장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> [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]"
(19.06.30 - (5))

- * **선지 간의 정합성** (눈에 잘 띄진 않지만, 강력!)

* **상황과 반응** : **상황마다** ~~정확하게~~ ~~충족~~ ~~판단~~ ~~정확~~ ~~대기~~ ← **반응!** **고호기심!**

- * **헛갈리는 선지**

**답지못이 한개 남고
시선이 다른 남았을 때...?**

- 상황이 화자의 예외상황을 대조하게 검토한다.

- 답지 다른 양도 강령, 을 살핀다.

**문학/화자
헛갈리는 두 선지**

- 화자 즉 시 차원인지

- 화자의 시 차원에 있는지
- 화자의 시 차원에 있는지

<원형> <답지>

- 모든 선지 다 읽고 - 정답이 될지 읽고

- **답지 정답** ↑ -

답지 한 개를 더 푸는 것보다
원형을 검토하는 게 내일 후 있다

1. 어느 선지가 주제와 더 부합하는가?

2. 어느 선지가 외적 증거와 더 부합하는가?

3. 어느 선지가 더 허용가능성이 높은가?

4. (1) A - - -> B / (2) C - - -> D (주관) - - -> D : 옳은 것은 (1)

* **평가원의 해설** : 긴 <보기>와 긴 선지, 단합하지 말고 **분별**하게.

- * **세부적인 내용 일치**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**지문을 차분히 읽는다.**

- * **감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통해!**

- * **판단이 애매한 선지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.**

- * **지문 발췌 문제**

; **발췌 부분** 전후 한 두 문장까지만 읽어도 충분하다. 대신 매우 정확히 팩트만 짚어낼

- * **헛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문제 / 지문은 넘기고 돌아와서 푸는 게 훨씬 이득이고 정**

- * **발췌부분을 팩트로 놓고 풀되, 정답선지가 도저히 안 보이면 발췌부분이 거짓일 가능**
; "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'티끌'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,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어요." (19.06.31 - (4))

- 고전 소설 / 현대 소설 / 극, 수필

1st. <보기> 문제

; <보기>와 선지를 먼저 분석. 의심 선지 골라내기. 줄거리 구조화 (특히 고전)

다이어그램처럼 골라내면!
답은 고작 70이다.

2nd. 지문 발췌 읽기

; 의심 선지 -> 확신 선지

3rd. 문제 선지들 보기 (10sec 미만)

; 나머지 문제들이 미시적인 것을 물어본다면 지문을 처음부터 이해하며 읽는다.
(몰입해서 읽지는 X, with 필터링)

4th. 지문 독해

; (줄거리) 와 (중략), 그리고 <대사 외의 부분> 에 반응.

(중략)을 기점으로 글이 변한다. 무엇이 변하는가?

- 서술자의 변화 / 분위기, 공간, 시대 등의 변화
- (중략)의 존재 이유

5th. 나머지 문제

한번에 차분히 꼭꼭 읽기

- 중요한 인물관계에 주목! 부수적인 인물관계를 중요한 선지로 낼 확률 X
-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은 명확히 구별
- 인물 관계 정확히 파악

- 현대시 / 고전시가

- 분위기의 흐름이 단순하다.

; $y = x$, $y = -x$, $y = |x|$, ...

- 화자는 good-man
- 외적 준거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
- 각주로 풀이를 해주는 건 문제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. 선지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.

화작 + 문법

- 화작

1st. 문제 풀기

; 지문 독해 시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선별. 빠르게!

2nd. 지문 독해

; 출제 point들에 반응하면서, 문제와 동시에 처리. 중기 앞!

이건 정해가 없다는 인본의 생각은 빼고.
출제자 나옴! 출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3번 이내! (19년 기준)

3rd. 미시적 선지를 판단

; 지문으로 돌아가면서 선지 판단.

+ 표, 그래프 문제는 먼저 분석하고 풀기. (9번, 10번)

- 헷갈린다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할 것!
- 선지 내용만으로 어느 위치에 그 근거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다.
- 내가 안 봤다면 내가 내가 고른 미시 선지에 대한 확률 ↑
고정관념 갖고 미시 선지 풀기. 그 선지가 정답 point 가냐 (19' 32' final. 21. 14-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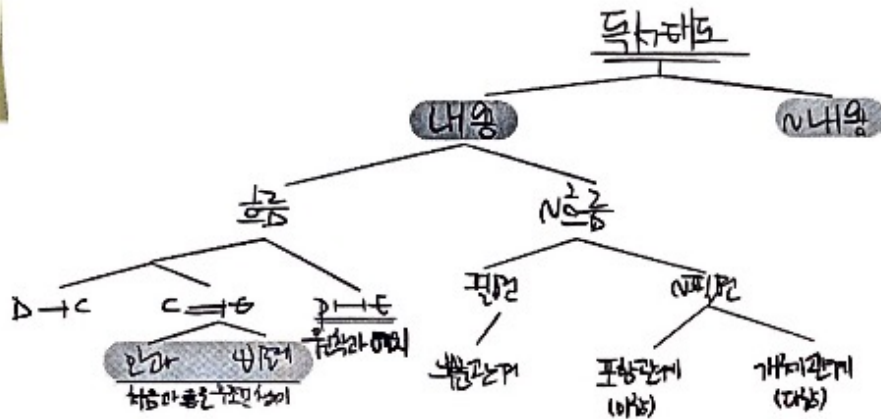
- 문법

• 지문형

1.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
2. 정답 선지가 "예외"에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
3. 정보량이 많을 경우 독서 지문이라 생각하고 독해하기

- 헷갈린다면 놓친 게 있는 것
- 정답이 헷갈리는 두 선지 내에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파트
- 중세국어 (~지문형)
; 중세국어이지만 중세국어가 아니다. 현대어 풀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.

•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의심하지 않기.



마지막 문단까지 정신줄을 붙잡을 것!!! 마지막 문단에
승한 빈 칸이.

- 지문을 읽는 단계, 인과도 कुछ 단위로 독해하기. / 선지 끝까지 읽기
- 3점 문제라도 그레머가 나왔다면 꼭지 잘 것. 90% 정도 지문-선지 확률이 높다.
- 필요한 부분은 MEMO
- 3점 혹은 딱봐도 고난도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풀어도 좋다.
- 문제에 그림이 있으면 반드시 참고하기 (과학 기술)
- 19.11.우주론 오마주 지문은 두 개로 나눠서 풀기!
- 지문을 중간쯤 읽었을 때, 혹은 정보량에 피로할 때 첫 문단을 다시 봐서 문제의식과 주제를 상기시킨다.
- 문단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내용물 정리하자. (20.06. 경계 3문단 → 디버깅도!)

~내용

● **호기심**

- 개념 등장 ; "너 왜 나왔니?"
- 글이 튕길 수록 끝까지 정신줄을 붙잡으며 ; "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?"
- **이항 대립 ; "무엇이 다른가?" "나열도 대비다."**
- 이해도, 집중도가 떨어질 때 ; "내가 어디에 있는가?" (지문 앞 부분 다시 읽어도 좋다)
- 연속적인 C=>E 관계 ; "그래서 결론이 뭔데?" -> 처음과 끝을 잡아라

● **출제 POINT check**

- 인문, 철학, 사회 : 논증, 이항대립
 - 과학, 기술 : 인과, 비례 포함관계는 비례에 비례한다.
 - 경제, 융합형 지문 : 이항대립, 인과, 비례
 - 법 : 원칙과 예외 **한편**
 - ~ 법 : 이상과 현실 (주로 기술, 사회, 경제 등)
 - ㉠ A ... ㉡ B ... ㉢ C ... 의 내용은 POINT check, 논증, 인과, 비례, 포함관계, 이항대립, 상황관계 등.
- 인과와 비례를 명확히 구분하기.
- 고난도선지 : 선지 내의 논증
: P → Q 관계 (이상) ⇒ P, (이상) ⇒ Q 이상
P와 Q가 독립/종속된 틀리다면 아니다.
- 과학의 trend : 추론 + 비례 → 반대추론.
- **상황의 전환** (20.09.4회) 2

● **5분 내외로 시간이 남았을 때 지문 한 개가 남았다면..?**

1. OMR카드에 쓴 답의 개수를 분석해본다.
2. 일단 가장 적게 쓴 답으로 찍는다.
3. 찍은 답이 오답인지 아닌지 지문과 대조해 보며 파악한다.
4. 답을 수정한다.